

'5·18'은 사과 대상 아니다?...전두환 부인 '대리 사과' 파장

이순자씨 "남편 재임 중 고통 받은 분께 사죄"...전씨 생전 인터뷰도 '광주 시민 우렁' 공분

전두환(90)씨의 영결식에서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내놓은 '15초 사과 발언'의 논란에 이어 대통령 퇴임 후 전씨의 생전 인터뷰 영상이 퍼지면서 오월단체와 광주지역민들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순자씨는 전씨의 5일장이 끝난 지난 27일 영결식에서 유족 대표로 나서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의 사과가 5·18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가 아니라 점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씨 곁을 지켜온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순자씨의 대리사과에 대해서 "5·18은 사과 대상이 아니다"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5·1'8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이전이고, 이씨의 사과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씨는 또 전씨 재임 중에 일어난 학생운동과 경찰 고문 등에 대해 직접적 책임은 없으나 대통령이니 이씨가 대신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유튜브에 한 언론매체에서 지난 2016년 진행한 전씨의 생전 인터뷰(2016년 4월)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씨의 사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다.

이 영상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발포명령과 무력진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씨는 "광주사태와 나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면서 "대통령 지낸 사람이라면 조금의 잘못이 있더라도 죽일 정도가 아니면 좋은 교훈정도만 남기고 자꾸 물고 뜯는 건 아니냐"라고 했다.

같은 질문에 동석했던 이순자씨는 "서로(전씨와 5·18)가 지난 일을 가지고 더욱더 마음 아픈 이야기 하지 말고 서로가 그 당시에 자기가 서있는 자리에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일이고, 그 길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쌍방간에 한 일



5·18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허반신이 마비된 채 5·18의 진실 알리기에 헌신한 이광영씨의 안장식이 지난 26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됐다.

〈독자 제공〉

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미움을 이시점에 풀고 국가 발전위해서 마음을 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를 찾아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이씨가 나서서 "광주사태는 양비론이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민주화를 위해서라던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데모를 하더라도 그 데모가 무장화 되고 폭력사태로 번지면 정부에서는 그 사태를 진압해야 하잖아요. 계엄군을 대표하는 사람만큼 신중성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전씨 입장을 대변했다.

결국 이영상에서 전씨와 이씨는 "5·18 당시 중요직에 있었고 직후 대통령을 한 자로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총체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식으로 5·18에 대

한 뜻을 밝혔다.

또 지난 2019년 이씨는 인터넷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씨가)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궤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오월단체는 "전씨가 사과없이 죽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자 면피를 위한 사과일뿐이다"고 일축했다.

김영환 5·18유족회장은 "이씨의 발언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행위일뿐 광주와 5·18희생자들에게 사과한 것은 아니다"면서 "광주시민들과 오월단체·유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표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울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도 '이순자 사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단체들은 "이순자의 사과 의도 발언은 오히려 '이렇게 사과했으니 다시는 이 문제가 거론되어 곤란해지지 않게 해달라'는 지지자들에게 선전용 메시지로 일한다"면서 "추진금 완납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사과의 시작이지, '사과하고 싶다'는 수준의 발언은 결코 사과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사무총장은 "전씨 측은 말을 할 때마다 5·18을 힘들게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모습은 다시 폄훼로 이어져 5·18을 더럽힐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5·18 유족과 부상자들이 정신적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5·18유공자 본인 및 생존하고 있는 직계존속 882명, 5·18유공자의 유족 25명, 그 박관현 열사의 가족 9명 등 총 916명이 943억여원을 청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기록관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30일 문화전당 정보문화원서 학술대회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8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오는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보문화원 '극장3'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세계인이 바라본 5·18 아카이브 컨퍼런스'가 열린다.

'세계인이 바라본 5·18 아카이브 컨퍼런스'는 매년 진행되는 시민집담형 학술대회지만, 올해는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세계와 나누는 5·18 연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세계에서 바라본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주제로 주한독일대사관, 아르헨티나, 미얀마 순서로 발표하고, 2부에서는 '각 나라별 등재물 관리 및 사례발표와 5·18기록물

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최재희 국가기록원장과 김귀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아태지역위원회 의장, 서경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지문위원회 전(前)위원이 발표한다.

3부에서는 5·18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임을 위한 행진곡'과 '고향의 봄'을 선보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추후 5·18기록관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해당 영상이 게재된다. 기타문의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하면된다.

홍인화 5·18연구실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전두환 사망 끝에 놓쳐버린 진실 규명으로 비통해하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스스로 진실의 힘을 드러내는 5·18 기록물을 통해 세계와 함께 연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미쓰비시 판결 3년...메아리 없는 외침만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오늘 사죄·배상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시민단체와 함께 대법원 배상 판결 3주년을 맞아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2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지 3년이 되는 오는 29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현재까지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사죄 표명도, 문제 해결

을 위한 협의 요청도 거듭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 원고 5명 중 2명(김중근, 이동현)은 이미 고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된 데는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법부 판결을 비난하며,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또한 외교적 갈등이 부담일 뿐, '사적(私的) 소송'이라며 원고 측으로 내몰려온 우리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금덕 할머니도 함께 참석해 배상판결 3주년을 맞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내일 비 온 뒤 찬바람...내달 3일 눈

이번 주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오는 30일 비가 내린 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다음달 3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오는 12월 1일 광주와 전남지역 낮 기온은 5도 이하로 매우 추울것이며, 3일과 4일 눈

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일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7도, 최고 기온은 15-18도로 전망되며, 비가 예고된 30일의 일 최저기온은 5-11도, 최고기온은 12-15도 분포를 보일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싸움놀이 축제 28일 오후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열린 '제38회 고싸움놀이 축제'에서 고싸움 재연 행사가 열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